

치 사

금년 광주우에서 열린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한 불자 선수단의
노고와 전체 선수단이 발휘한
열정으로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의
성과를 낳은 것에 더없는 고마움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모든 경기
일정들을 마치고 새해 준비로
분주함에도 오늘 대한불교조계종

**에서 마련한 환영식에 참석한
불자선수, 임원,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광저우 대회에 앞서
전체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격려차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우리 체육인불자연합회 회장인
이기흥 회장님이 제16회 대회의
전체 선수단 단장 소임을 맡아
이끈 다는 소식을 접하고, 더욱
선전하여 좋은 결실을 맺어 불자**

**들의 자긍심과 국위를 한 단계
더 높이 선양하기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대회
초반부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며
최고의 기록으로 회향함을 보고
무량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비록 때를 같이하여 발생한
연평도 사건으로 사회적 이목을
다 받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온 불자와 국민대중 모두**

**여러분의 노고와 국가적 경사를
한 마음으로 느끼고 나누었습니다.**

**요즘 종단 내외는 물론 사회적
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치유하고 모두가 상생
하는 길을 모색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빨리 거두어
내고 희망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은
소통과 화합으로부터 나오는 것
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고 국민적 단합을 이루어
나갈 때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약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스포츠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가 더욱 절실
해지고 있습니다. 참가 선수단의
영광과 그에 따른 국위의 선양을
넘어 이제는 흠어진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사회적 함의를 만들어
내는데도 그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 경기 승패나**

메달 획득 여부를 떠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 하나가 국민모두의 가슴에 감동을 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자양분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제 한해를 마감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며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 성취를 위해 땀방울을 흘려야할 때입니다. 금년 한해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열정으로 참 행복했습니다.

**신묘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또 불자들과 국민 모두에게 기쁨과
감동 어린 시간으로 충만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제16회 아시아
경기대회와 제10회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불자선수들과 임원단을 모시고
조출하게나마 환영식을 빌어 치하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선을 다함으로서 값지게 맞이한

**신묘년에 모든 불자 선수단과 가족
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리며,
더욱 향상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0년 광저우 경기대회에 출전한
불자 선수여러분! 임원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기 2554년 12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